

200만 도민의 행복이 최우선



충청남도지사 이완구

희망찬 무자년(戊子年)을 맞아 '열린충남 2008년 신년호'가 발간된 것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충남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충남발전연구원 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도민 여러분의 큰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그 어느 해보다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일궈냈습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태안기업도시가 본격 착공되었고, 국방대의 논산 유치와 당진-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확정 등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중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반면, 지난해 12월 헤메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청정해역을 자랑하던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일대가 한순간에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도민 모두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기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태안 앞바다를 살리기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수십만 자원봉사자들의 행렬과 각계각층의 따뜻한 온정과 도움의 손길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 결과 서해안이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루빨리 아픈 상처와 고통을 훌훌 털고 일어나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도정을 '일등 경제 속에 고품격 문화가 살아 있는 충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이루는 데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민선4기 출범 이후 역점으로 추진해 온 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인프라의 구축과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알차게 추진하여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보다 높여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의 경우, 그동안 단순히 휴식과 소인거리의 공간이었던 경로당을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경로당 웰빙화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575억을 투자하여 노후된 경로당의 리모델링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경로당의 증·개축·신축 등을 통하여 경로당을 웰빙공간으로 만들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현실화하겠습니다. 또 자립형 경로당 육성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 보급, 지역복지자원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활력 있고 건강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또한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장애인의 생활기반 조성, 이동과 접근성 향상, 직업재활과 고용 확대, 교육과 정보화 수준의 제고, 인권신장 등을 위해 2012년까지 총4,376억(109개 사업)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계층별·지역별 맞춤형 보건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지와 벽지, 섬 등에서 실시간으로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구축한 'U-Health 원격영상 진료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 가동하고 저소득과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내과와 치과, 한방 중심의 진료뿐만 아니라 피부 질환의 진료도 병행하겠습니다. 또 행복 보건소만들기 컨설팅 등을 통해 보건소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고,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과 다자녀 모범가정 선발 등 최근 국가와 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계층간에 복지정책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연구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5개 분야 66개 사업에 총 4,300여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아동과 노인, 여성,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일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업무능률을 극대화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도 적극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와 경제, 문화예술 분야를 강화하는 등 도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새로운 기대와 희망 속에 다가온 2008년 새해를 맞아 충남발전연구원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연구원 가족 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보람과 기쁨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충청남도지사 이완구